

장소와 랜드마크

Place & Landm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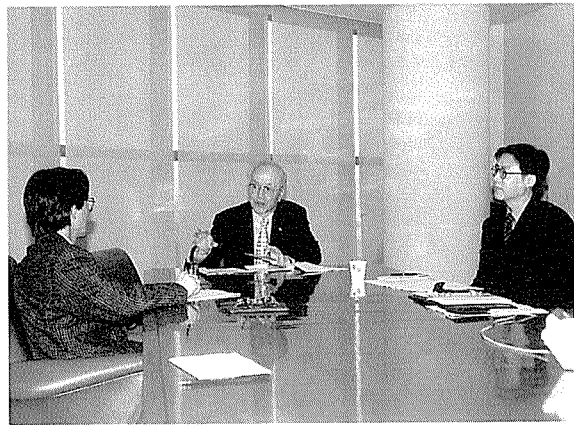
건축사 / 김정철 · 문진호(정림건축)

대담자 / 양진황(한울건축)

Kim Jung-Chul, Moon Jin-Ho & Yang Jin-Hwang

일시 / 99. 3. 18.(목) 15 : 30

장소 / 정림건축 회의실



대담광경(왼쪽: 양진황, 가운데: 김정철, 오른쪽: 문진호)

양진황 _____ 먼저 사옥을 신축한 것과 같은 장소에서 계속 사무실을 발전, 운영하는 것에 대해 축하드립니다. 대개 건축가들이 자기 스튜디오가 있는 아늑한 공간을 갖고자하는 것이 꿈인데, 정림건축에서는 두 번이나 사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품으로서 뿐만 아니라 일반적 개념에서 사옥을 두 번이나 갖게 된 것에 대해 남다른 감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철 _____ 먼저 정림신사옥을 선정하고 대담을 하게 해준 사협회와 또 이 대담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준 양진황소장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옥을 가진 것이 두 번째가 되는데 첫 번째는 75년도에 대학로가 생기기 전 이화동네거리에서 동대문까지의 율곡로에 위치한 대지를 확보해서 당시로서는 꽤 큰 규모인 600평 정도의 사옥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축복받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구사옥에서 설계작업을 하다보니까 회사규모와 인원이 늘어서 원활한 설계활동을 하는데 충족한 공간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사옥을 짓기전에는 3곳의 작업장에 나누어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불편을 해소시켜야 되겠다고, 창작생활을 한다는 것은 일반사무를 보는 것과 달라서 작품을 다루는데 그 작품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자료나 설계자의 사유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한 공간에 모아야 될 필요를 느꼈습니다. 마침 창립 30주년이라는 때를 맞추어 신사옥을 짓자는 소명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구사옥때와는 다르게 주변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구사옥이 지어질 당시는 한 도로에 면한 대지였다면 신사옥을 지을 때는 십자로의 모퉁이에 해당하는 땅으로 대지조건이 변했습니다. 정림으로서 이 사회가 이런 기회를 준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는 이따금 회사를 집단이라고 말하는데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을 이루고 팀을 구성하여 조직설계를 하면서 좋은 건축을 하기 위해 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양진황 _____ 그동안 많은 기간동안 대부분 실제 사용자와 설계자가 다른 건물을 설계하셨는데 사옥의 경우는 다른 것과 달리 스스로 생각하면서 스스로 요구조건을 만들어내고 또 만족시켜나가야하는 설계과정인데 실제 사용자와 설계자가 같은 경우에 설계의 방법내지는 설계에 임하는 자세가 다르리라 생각합니다.

김정철 _____ 확실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설계해 오던 것과는 다릅니다. 사용자가 우리 자신입니다. 어떤 면으로는 가장 이상적이고 일치된 설계작업을 할 수도 있고, 반면 내재하고 있는 요구조건을 정리해서 그것을 공간으로 바꾸어 설계를 완성해서 지으려고 하니 그만큼 어려움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설계작업이라는 것이 사실 여러 여건이나 요소 중에서 선택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자기자신의 일을 직접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사실 건물의 소유주로서 몇가지 조건만 제시했을 뿐 설계는 담당자가 했기 때문에 건축주와 설계자가 따로 있는 셈이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했던, 설계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축주의 커뮤니케이션 부족으로 인해서 충분한 작업을 못하거나 아쉬운 점들이 많은 것이 통례인데, 그런 것들이 다소 해소됐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다행스런 작업이었습니다.

양진황 _____ 우리가 사용자와 설계자가 사회적으로 적당한 거리를 갖고 있을 때 사용자가 요구하는 크라이테리아(Criteria) 중에 덜 중요한 것과 더 중요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서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동일할 경우에는 굉장히 작은 욕구도 크게 부각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설계자와 사용자가 일치한다고 해서 반드시 쉬운 작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설계에 임할 때에 설계 방법론상 다른 프로젝트와 다른 점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문진호 예전에 일본과 미국의 유력한 설계회사를 다수 방문하여 벤치마킹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경험과 자료들이 신사옥을 지을 때 많이 반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개인공간이 우리보다 넓고 부대편의시설도 잘 갖추고 있고 특히 프리젠테이션을 위한 공간이 잘 꾸며져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고객들이 처음 방문했을 때 그 사무소에 대한 첫인상이 중요한데 외국에서는 대기실에서 고객을 일부러 기다리게 하면서 전시된 작품들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각기 사무소에서 갖고 있는 독특한 이미지를 고객들에게 어떻게 전달하는가에 관해 여러가지 좋은 예들이 많았습니다. 작업을 하면서는 전 직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공유시설, 개인공간 확보, 편의시설 확대 등 많은 의견이 나왔고, 수시로 직원들과 토론을 통해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실은 사옥이기 때문에 더욱 그랬지만 설계과정에 적극적인 사용자의 참여를 유도한 경험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유익했고 그 이후에도 학교건물, 상업건물 등을 수행하면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상업건물일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이 일일점원이 되어 현장을 목격하고 기능을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사용자와의 인터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자신들이 고용자가 되어보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양진황 처음에 계획한 프로그램과 완공후의 프로그램상의 변화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내부용도의 변화라든지 사용방법 측면에서의 변화 등...

김정철 초기에는 유사한 업종끼리 모이기로 계획됐었는데 그러한 의미에서 프로그램의 약간의 변화는 있었습니다. 30주년을 기념해서 사옥을 짓는다면 설계나 디자인에 관계된 회사들이 대지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입주한다는 생각으로 규모를 결정하게 됐고, 그 당시 대학로 주변이 상당히 문화적인 지역으로 바뀌었는데 네거리의 모퉁이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장소가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랜드마크가 되어야 하겠고, 상징성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이 지역에 있어서의 게이트의 역할을 감안해서 건물의 높이, 크기, 모양 등이 결정됐습니다. 심지어는 24시간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문진호 그의 설계진행 과정에서의 변화는 초기에 디자인 전담팀의 별도공간이 두 개층이 계획됐었고, 입구의 오픈된 공간처럼 두 개층을 이용하여 철재로 좁고 긴 공간을 만들어 자료실로 활용하도록 계획됐었는데 실현을 못시킨 것이 아쉽습니다. 반면에 지하 2층은 현재 다른 용도로 들어와 있지만 언제든지 문화공연장, 전시장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양진황 사실은 그런 공간이 상당히 기대되는 위치이고 건물인 것 같습니다. 말씀한 것처럼 지상층에서 2개정도 오픈되면서 공간감을 높여주기도 하고 또 거기에 맞는 용도가 결부되는 포인트가 몇 개 더 있었으면 더 재미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구사옥 건물보다는 규모도 커지고, 위치도 접한 면이 달라짐으로써 이 건축이 갖는 영향력이 그만큼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력이 커졌을 때 물론 작을 때는 조금 소홀해도 되는 부분이 있었을텐데 커지면 눈에 빨리 띄고 영향이 직접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기존환경에 대해서 배려한 점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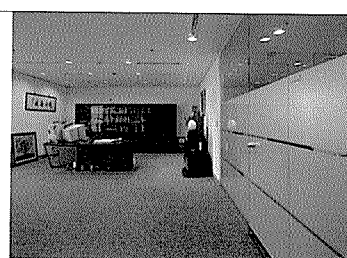
김정철 설계를 담당한 사람에게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나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더라는 개념보다는 여기가 문화의 거리답게 지하에 문화공간을 수용하고 싶었고, 중요한 층에는 미술이나 갤러리 등과 관련시키고 싶었습니다. 또 각 층마다 우리가 사용하는 층을 빼놓고는 설계와 관계된 디자인이나 엔지니어링과 관련된 회사가 한 건물에 모여서 협동작업이 되면 사회가 요구하는 좋은 건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 외에 공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볼 때에 아래층에 피로티를 두고 사람들이 거쳐



정림구사옥



정림신사옥(야경)



정림신사옥(홀)

가거나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은 배려를 하지 못했습니다. 땅은 협소한데 하고자하는 욕구는 크다보니 전체적으로 주위에 주는 영향력이 적지않으리라는 생각은 하는데 흔히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주변의 도시 컨텍스트는 많이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기존의 어떤 컨텍스트에 조화를 이루어나간다고보다는 거의 기존의 컨텍스트를 존중할 만한 것이 없다고 판단해서 새로운 기준을 건물들 통해서 설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했습니다. 사실 주변에 단층내지는 건축적으로 가치를 인정하기 힘든 옛날 건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는 이 건물이 주는 영향력을 설계하는 사람은 디자인면에서 많이 고민을 했다고 봅니다.

양진황 75년 구사옥이 설립된 이후 이 지역의 장기 거주자로서 이 사이트에 대한 애착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대학로가 활성화가 됐다든지 등 가로환경의 변화를 통해 25년여 동안 이땅에 살면서 지켜보고 느끼는 땅에 대한 애착이 구체적으로 건축에 작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정철 땅에 대한 특별한 애착보다도 그동안 이땅에 와서 정림이 굉장히 발전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땅에 대한 고마움이 있고, 다행히 대학가라는 문화거리와 가깝고 거기에 표식구실을 할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75년 처음에 이사올 때는 원남동에서 동대문으로 가는 도로는 계획만 있었고, 그 도로가 개통되면서 정림 구사옥이 준공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지금의 대학로가 문화의 거리로 명명이 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도시계획의 시점과 정림 구사옥의 운명이 일치된 셈입니다.

양진황 대지 위치를 다시한번 보니까 동대문에서 정림사옥이 있는 네거리를 지나서 비원으로 가는 가로상의 중심이고, 또 대학로에서 사옥을 중심으로 종로5가로 도로가 통하고 있습니다. 정림사옥을 중심으로 동대문과 종로5가 쪽의 분위기가하고 대학로나 비원이나 창경궁의 분위기가 다릅니다. 주변환경과 관련해서 정림사옥이 갖는 장소성에 대

해 계획할 때 어떻게 정의를 내렸는지 궁금합니다.

문진호 설계당시 주변성격은 충분히 파악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100주년기념관이라든가, 동대문시장, 문화거리, 인근의 여러 건축사무소, 고적의 흔적 등 주변의 다양한 성격을 이해했는데 그것이 건축에 구체적으로 작용한 흔적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초기의 매스계획에 있어서 큰 볼륨이 주는 부담감 때문에 6층 규모의 구사옥을 허물지 않고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15층정도의 신사옥을 계획했습니다. 구사옥은 전면 파사드만 손질을 하고 중간에 코아를 만들어 후면 레벨을 같이 쓰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사거리에서 느끼는 스케일이 작은 매스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큰 스케일의 매스가 나오는 것이 터와 건물에 대한 존경심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 흔적을 남기자는 뜻도 있었는데 결국은 사업성이 결부되다보니까 마음 속의 가치와 경제적인 가치에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전면 신축사옥을 짓게 된 것입니다.

양진황 교차로의 네거리, 더더욱 대학로에서 보면 시각적 터미너스가 되는 위치에 사옥이 들어섰습니다. 운명적으로 랜드마크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미지나 형태상에 어떤 의미를 두었는지, 그리고 사옥이 갖는 디자인상의 특별한 표현방법이 있었는지 여러가지 스타일이라든지 시대성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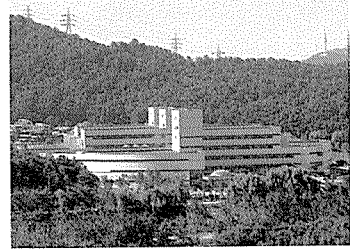
김정철 몇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장소적인 의미에서 십자로의 코너에 있는 대지에서 있는 건물, 대학로를 보고 얘기할 때는 게이트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건물이 주는 건축적인 의미가 그동안 매시브하고 무겁고 폐쇄적이고 콘크리트 전용적인 건물을 많이 지어왔는데 그런 부담을 말끔이 해소시키는 가볍으면서 심플한 디자인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간에는 조명탑처럼 항상 따뜻한 불빛이 비춰나오는 바다의 등대 같은 타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림신사옥(설계실)



한국종합전시장



한국통신 서울사업본부 전자교환운용연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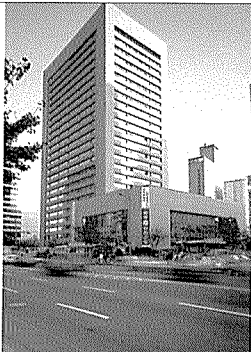
양진황 _____ 형태는 너무 매시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재료는 같은 의미로 너무 무겁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구사옥과 신사옥을 비교했을 때 구사옥은 외벽이 조적조나 타일로 솔리드하고 색깔도 짙은 밤색으로 어두워 보였습니다. 어둡다는 것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 당시만 해도 현재처럼 주변건물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썩 작아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사옥은 가볍고 투명해 보이는 구사옥에 비해 반대적 건축언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반대된다는 점이 처음에 사옥을 생각했을 때의 상황과 어떤 것이 달라졌기 때문에 대칭되는 건축언어로 표현되어졌는지 궁금합니다.

김정철 _____ 특별히 어떤 여건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기 보다는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 6층 규모의 건물이면 꽤 큰 규모에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주변의 랜드마크가 된다든지 상징이 된다는 것은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소박하게 그 당시에 필요했던 공간만들기에 주력했습니다. 또 삼양사 건물에 사용한 PC패널을 선택, 적용하면서 색깔이 좀 짙다는 생각은 했지만 그 당시에 PC 커튼월을 감싼 것이 정립사옥이 처음이었습니다. 물론 삼성건물 등이 그 이전에 있었지만 그것은 철골로 올라간 것이고 삼양사는 RC 건물에 PC패널을 붙여서 커튼월을 만든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썼던 타일에 대한 애착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지은 건물은 주변환경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여기에 어떻게 존재할 것이냐, 또 설계사무소가 있는 건물이 어떤 이미지를 줄 것이냐 하는 당면과제들을 디자인하면서 생각을 했고 또 결정하는 단계에서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느끼는 것이 주변에 부담을 주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고층건물이면 주변에 당연히 압박감을 주는데 그런 것을 해소시켰다고 생각하고, 어느 면에서 봐도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 건물이 갖는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랜드마크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구사방법에 있어서도 상당히 심플하게 외벽의 타일과 커튼월 두 점으로 대별할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디테일을 다운시키느냐 등의 문제만 해

결했다고 보는데 사실 야간에 조명은 건물외부에서 비치는 방법이 있고 내부에서 빛이 나가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내부에 조명을 함으로써 빛이 밖으로 새나오도록 해서 하나의 발광체가 돼서 불이 꺼진 밤에도 최소한의 조명으로 거리의 등대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양진황 _____ 네방향에서 볼때 형태적으로 전혀 다르므로 동일건물임을 의식하게 해주는 요소가 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들어 둥근 커튼월이 쓰였으면 다른 부분에도 둥근부분이 있음을 연상시키는 힌트가 나타난다든지 흔히들 그렇게 예측하기 쉽습니다. 이 건물의 형태가 정해지게된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 한두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생각에는 혹시 이 사옥을 중심으로 네방향으로 크게 두 길이 흐르고 있는데 각각의 원거리시점에서 이 건물을 보는 뷰(View)를 감안한다든지 또는 내부공간의 효율성이 감안돼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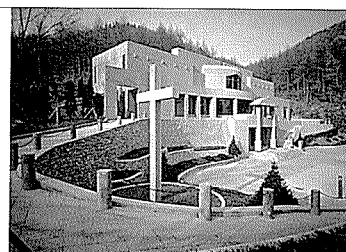
김정철 _____ 그동안 설계작업은 그야말로 정면, 측면, 배면이 있는 박스형태의 작업을 해왔는데, 근자에 와서는 그것을 탈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시가 너무 경직돼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최근의 작품에 곡면을 이용했다든가 실린더를 사용한다든가의 조형방법을 많이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의 대지는 네거리의 코너에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월을 접어야 됐는데 그것을 좀 더 부드럽게 접어서 건물이 갖는 모양이 시민들에게 부드럽게 느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가지 고민했던 것은 둥근커튼월이 있는 곳이 서향인데, 북한산이 바라다보이는 조망이 제일좋은 곳 또한 서향이고 그곳을 오픈한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도 건물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삶의 기쁨 등을 생각하면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모든 것이 우선 순위의 과정에서 선택의 삶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에서 곡면을 선택했습니다. 사실상 곡면이 이러한 건축에 있어서는 풍요함을 주지만 기능적으로는 이용면적상 반기능적인 면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주로 모난 부분을 이용하면서도 활용도를 극대화



외환은행 본점



연세대 100주년 기념관



순교자 기념관

시키면서 북서쪽이 커튼월로 돼있고 남쪽이나 동쪽도 커튼월을 이용하되 횡선을 줌으로써 스케일도 다운시킵니다. 디테일이 부족하다고 했지만 실제 건설하면서 내집을 내가 지이니깐 그 뒤의 설계변경 추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더 진보하고 발달하는 것인데 우리 사회에서는 설계변경을 터부시하고 있습니다. 부정하고 연결될까봐 그러는데 설계변경은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더 좋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변경을 시도했는데 그런 것이 로우업(Follow up)되면 건축들이 정말 쓸모있는 좋은 건축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양진황 _____ 둥근부분은 경직된 것을 줄이고 내부공간에서 원경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 커튼월 확보 개념으로 원호를 사용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땅이 조금 더 컸다면 그래도 이 건물이 랜드마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와 높이가 되기 때문에 어느 방향에서 보든지 좀 더 심블릭한 형태로 처리되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정철 _____ 그 방법이라면 어떤 것을 ……

양진황 _____ 예를들면 서쪽에 라운드월이 있다면 코너의 부드러움 뿐만이 아니고 라운드와 박스의 결합된 개념의 형태로, 다른 면에서도 그 흔적이 나타난다든지 해서 코너를 살려주면 약간 여유스런 부분을 포함한 규칙적인 내부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지의 여유가 너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으리라는 생각입니다만, 민간건물이라 하더라도 랜드마크로써 공적임무를 담당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보기도 편만한 건물이지만, 좀 더 심블릭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정철 _____ 그것은 항상 전문가들이 빠지는 딜레마가 아닐런지… 우리가 양면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평면적으로 보면 그런요소가 보이고

조형적으로 이미지가 향상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사람도 앞뒤가 전혀 다르지만 거기에 익숙해 있듯이 건물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대지의 제약도 있고 확보하려는 공간의 크기도 있다보니깐 가장 기능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선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라운드로 돌리는 경우는 공간을 정말 여유있게 쓸 때고 효율성면에서는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항상 작품을 만들 때 겪는 갈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라운드와 모진부분이 형태는 다르지만 표정이 있으며 투명한 부분을 같이 썼다는 면에서는 일맥상통하는 디자인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진황 _____ 다른 요소가 한 건물에 쓰여서 보는 위치에 따라서 달라보이는데 그것이 한 건물임을 알게 되는 것은 흔히 학습을 통해서입니다. 만약에 공통의 요소가 있으면 유추에 의해서 한 건물임을 빨리 알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지전달이나 의미전달이 빠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97년에 「대청마루」에서 봤는데 대구신세계백화점, E-마트 현상안이 실려 있었습니까. 그 현상안을 볼 때의 느낌과 신사옥을 만진 솜씨가 유사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옥은 기준층 면적이 작고 타이트한 쪽에서 자유가 없는 환경에서 디자인한 것 같고, 신세계백화점과 E-마트는 만질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다고 봤습니다. 대구신세계백화점과 E-마트 그리고 신사옥을 비교해 보면 보통 그 전에 매스상의 구분, 예를들어 둥근매스가 박스형 매스와 결합될 때는 반드시 재료가 달라진단든지 어쨌든 그것이 구조적인 방법일지 모르겠는데 사옥이나 신세계, E-마트에서는 그런부분이 오히려 자유분방하게 잘 엮여져 있어서 이런 해석방법이나 조형 접근방법도 좋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신사옥의 조형에 대해서 여쭙보겠습니다. 북쪽과 서쪽면을 만진 방법이 북쪽면은 어쨌든 한 개의 매스가 될 수 있는 것을 둔각으로 된 삼각형으로 만나는 커튼월과 둥근커튼월과 알루미늄 쉬트로 된 솔리드한 매스로 세장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서측의 둥근부분에서는 매스는 같이 흐르는데 재료가 달라지는 스킨



프라자 호텔



MBC 문화방송 사옥



전주서문교회

플레이를 하셨는데 두 면을 다루는 기법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을 느꼈는데 혹시 어떤 생각이 있으셨는지...

김정철 _____ 우리는 되도록 차세대라고 할까 젊은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과감하게 맡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세대는 보수성이 있고 옛날의 방법을 가지고 있어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디자인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는 시니어로서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그것을 택 하든 자기방법대로 나가든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여러 가지 작품의 방향까지 조절하고 간섭하기도 했는데 요즘은 디자인하는 담당자가 자기의도대로 작품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작품을 다루는데 비슷한 방법으로만 해야되는냐는 문제에 부닥치곤 하는데, 그런 면에서 곡면부분도 수직을 강조하면서 수평적으로 나누어 스케일을 다운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진호 _____ 북서쪽을 곡면으로 처리한 배경은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곳은 각각정리 공여부분이고, 둘째, 정서향을 면해 서향빛의 영향을 직접 받고, 셋째, 서북쪽으로는 수려한 북한산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좋은 천혜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도로가 확폭되면서 각각정리가 되어 45도 정도로 부지 일부가 사거리 도로에 저촉되므로 필연적으로 곡선을 선택하였고, 서향빛을 최대한 막기 위하여 같은 곡면부에서도 정면 서측은 알루미늄으로 막고 북서쪽은 투명하게 하여 원경을 차경하였습니다. 건물의 코어를 서쪽에 배치하고 계단참을 남쪽에 둔 것도 모두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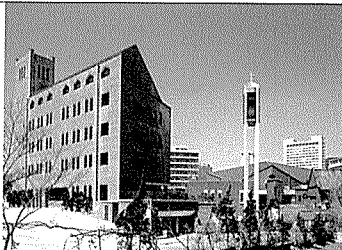
양진황 _____ 이 사옥에서 실험적으로 시도한 것이 있다면...

김정철 _____ 우리가 쓰는 공간을 일반 오피스처럼 만들 것이냐 아니면 공장처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것이냐를 두고 고민을 했습니다.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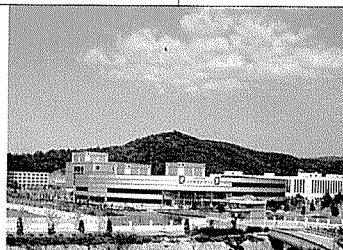
준층의 천정을 임대층은 제외하고 작업실답게 꾸미도록 한 것입니다. 닥트리든가 파이프라든가 구조 등을 노출시키고 좀 더 높은 공간을 만든 것이 특이하고, 10, 11층만 아트리움 공간으로 만들었지만 애초에는 좀 더 과감했습니다. 3~4개층을 오픈 시켜서 그 안에서 작품생활을 하는 이들이 호흡을 같이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시공단계에서 바꿨습니다. 또 하나는 계단이 항상 폐쇄적인 공간으로 만들어져서 단지 피난통로 구실만을 했는데 그것을 과감하게 산 공간으로 만들자고 했습니다. 계단의 중복되는 구조가 유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 참 아름답습니다. 밤에도 보면 조명이 있어서 좋고 직원들의 휴식공간으로도, 가족끼리의 만남의 장소로도 활용이 되는 공간입니다. 사실은 코아옥상에 작지만 리뷰비를 하나 만들고 싶었는데 이 대지가 갖는 응적률이 한 평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코아부분에 라프테이블을 마련해 놓고 직원들이 일하다 지치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대화공간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것을 못했습니다. 자랑스런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양진황 _____ 예상한 것보다도 완공 후의 느낌이 더 좋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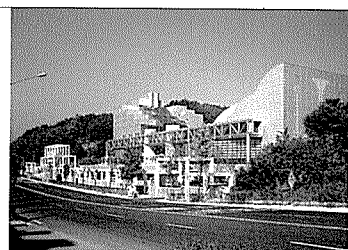
김정철 _____ 우선 조형방법이 그동안 무거웠는데 이 건물이 주는 인상이 경쾌하고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애당초 타일을 시도적으로 건축공법으로 사용했는데 내가 늘 주장하는 것이 돌을 밀폐시키는 방법은 돌을 오염시키는 것이고, 돌건물이 2, 3년만 지나면 겁게 변하는데 그것을 드라이 공법으로 해보자고 했는데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사실 내부에 방수를 하고 돌도 숨을 쉬어야만 그 생명력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돌을 붙이더라도 산 돌을 입히는 것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를 늘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는 이 타일의 시도가 좋았다고 보고 타일이 주는 느낌이 처음에는 흰색이 괜찮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또 하나는 내부의 조망인데 뷰의 중요함을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창밖의 풍경이 모두 내 정원같은 내부공간에서 확 트인 공간을 만들었



정동제일 감리교회



데이포م 정보 통신연구소터



대덕대학문화센터

다는 것과 좋은 환경을 만끽할 수 있다는 것 거기에 상당히 창의적인 삶이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진황 _____ 디자인의 큰 틀을 관여하고 디테일은 담당자에게 일임한다고 했는데 교육환경이 각기 다를 수 있는 여러 성향의 담당자들이 동시에 진행시키는 프로젝트들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담당자들을 시니어아키텍트라고 한다면 회장님은 슈퍼시니어아키텍트로서 그 자유스런 분방함을 무제한 열어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우리 사무실에서는 용납이 될 수 있다, 없다는 범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이해는 되는데 사무실작품으로는 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회장님께서서는 다양한 컬러의 팀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즉 어떤 선에서는 용납이 되고 안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의 관에 비추어 그 선을 긋는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김정철 _____ 글썬요. 그것은 여러가지 기준이 다르리라고 봅니다. 내가 한참 활동할 때는 어떤 큰 흐름에 있어서 틀을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위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생각해 보면 건축계의 여러 일꾼을 배출하고 길러낸 것이 정림의 큰 자부심이 아닌가 합니다. 건축계에 큰 일을 했고, 또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큰 역할을 담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이사가도 실습나와서 정림을 알게 됐고 자기의 방향설정을 했다고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작품이 인디비주얼한 것이 아닌가 개인에 따라서 작품의 성향이 달라지는 것인데 또 작품이 이런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정설도 없다고 봅니다. 인간을 수용하는 공간 또 도시에 같이 존재하는 하나의 큰 조각이라고 볼 때에 그런 범주에서 욕구를 잘 충족시켜주는 그런 좋은 건축, 건강한 건축 그런 면에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해결이 잘 안된다거나 비가 샌다거나 또는 쓰기가 불편하다거나 지나치게 작품성을 좇다보면 사용자가 불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강행하는 것은 건축가에 부

여된 특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되도록 젊은 사람들에게 과감한 작품 시도를 그것이 큰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면 방임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실상 이 작품(신사옥)도 문이사가 여러 차례 직원들을 상대로 디자인리뷰를 했지만 어느 정도는 재량권을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아이디어나 경험을 보태주는 것으로 만족했고, 그것을 채택하든 안하든 그것은 문이사가 알아서 할 일이었습니다. 타일의 흰색을 쓰는 것도 나하고 의견이 맞지 않았습니다. 좀 더 따스하고 부드러운 색으로 하기를 원했는데...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정림이 해낼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건축철학이 다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사회적 요구를 충실하게 해결하는 것이 작가이지 내가 내취향이나 내철학에 의해서만 사용자를 강요하는 건축은 인간 중심의 또는 사용자 중심의 건축이 아니라고 봅니다. 내 취미로서 만족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은 비교적 규모가 있는 퍼블릭한 성격을 가진 건물에는 너무 작품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존경하는 김수근선생은 정말 작품을 독특한 아이디어나 컬러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작가이지만, 거기에 사회성은 다소 결여된 점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서 젊은 건축가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바라고, 정림이 건축계에 많은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양진황 _____ 어쩌면 그것이 정림건축의 지배적인 철학이고, 또 작품의 경향을 어느 측면에서 정의해 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작품활동을 오래 해 오셨는데, 그중에서 사회적 찬사와 거리는 있더라도 스스로 작가의 입장에서 보람이 있었던, 혹은 특별히 기억에 남는 작품을 든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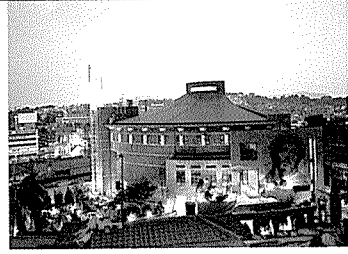
김정철 _____ 솔직히 그런 질문을 받으면 당황됩니다. 굳이 지적한다면 이성관씨하고 작품을 했던 전주 서문교회가 있습니다. 조형성이나 종교건물로서 공간의 미나 경관성, 주위환경과의 어울림이 상당히 절제있는 방법에 의해



이대행정관



이대목동병원



에담교회

서 됐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비록 작은 작품이지만 김진구씨하고 했던 순교자기념관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정림의 가장 큰 발판이 됐던 것은 외환은행 본점이었습니니다.

양진황 _____ 문이사가 입사했을 때 그동안 정림에서 작업한 작품들을 본 소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림은 한가지 스타일로만 작품을 하지 않고 다양한 트렌드로 작품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그것을 본 후에 리액션으로서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진호 _____ 제가 입사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입사하게 된 동기는 83년 대학시절 하계실습과정에서 정림에 왔다가 작업과정 등 여러 가지 좋은 기억들이 있어서 90년도 입사를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정림의 모습, 늘 새로운 좋은 작품을 시도하는 실험정신이 좋았습니다. 지금에 와서 과거의 작품과 현재의 작품들을 동시에 비교하는 데서 오는 평가 절하가 아쉽습니다. 70년대 당시의 정림건축 작품들을 보면 우수한 작품들이 많았는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회장님 두분의 주도아래 특정한 흐름보다는 다양한 시도를 했다는 것도 정림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림의 무한한 힘은 훌륭한 인재들이 계속 정림의 문을 두드렸고, 직원들은 그것을 회장님의 인복이라고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작품하고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경험이 없을 때 정림에 왔기 때문에 제가 마음껏 디자인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불과 2, 3년정도입니다. 아직도 제가 나아가야 할 건축가의 방향을 찾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림에 와서 제가 한 것들도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행한 작품중에는 외국의 영향도 상당부분 잊혀지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개인적인 고민이지만 디자이너로서 저의 스타일을 정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회사의 다양성속에 같이 이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양진황 _____ 작가의 과정이란 끊임없이 변모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고착적인 유형을 보여준다든지

하는 것이 빨리 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집요하게 추구하다 보면 유형이 발견될 수 있다고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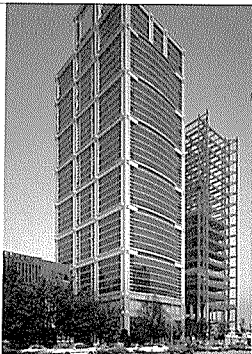
문진호 _____ 앞으로 제가 정림의 디자인의 한부분을 담당하게 된다면 일관된 스타일을 갖고 계속 깊이를 더해 가겠습니다. 또 저같은 디자이너가 정림에서 둘, 셋 또 새로운 젊은 사람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회사로 보면 다양하고, 정림안에 있는 디자이너 각자는 독특한 양식을 갖는 다양성 속의 개성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렇게 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진황 _____ 정림은 어떻게 조직의 특성상 다양한 형태로 보일 수밖에 없고 다양한 여러 개의 형태들이 각기 최상의 것을 추구하는 노력이 결여되면 멈추는 것인데, 멈추지 않고 계속 매진해 나가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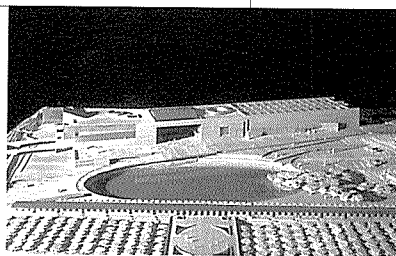
김정철 _____ 사실 정림신사옥이 건축가협회에서 '베스트7'으로 선정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 지역에 건축이라는 것이 저렇게 돼야 되는구나 알릴 수 있다면 또 이 건물을 통해서 건축주한테 건축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대변하고 있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면에서 이 건물을 '베스트7'으로 선정해 주고 건축사지에서도 취급해서 건축계뿐만 아니라 사회에 건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양진황 _____ 올 해가 「건축문화의 해」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책을 맡아 여러가지로 건축과 문화의 저변을 알리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더욱 건강하시고 정림건축과 「건축문화의 해」에 대한 작업들 모두 좋은 발전과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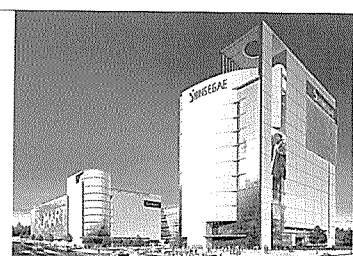
김정철 _____ 고맙습니다.



삼보컴퓨터 사옥



국립중앙박물관



대구 신세계백화점 E마트